

# 내면의 본래 길을 찾다

(道)

## 禪과 현대미술

© Richard Long



1989년 작품 <FOOTPRINT LINE>. 걸어가는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의 교감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리처드 롱의 작품들은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고정화하지 않는다.

정원에 피어오르는 자그마한 꽃을 무참히 밟아 가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행위가 예술이 된다.

리처드 롱(Richard Long, 1945~, 영국)은 22세 때 정원에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예술가가 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인식한 도(道)는 곧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젊은 리처드 롱은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그가 주로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만든 길은 그 외에 누구도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막 등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며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 길의 흔적들은 사라진다. 사라진 길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본래의 자연으로 회귀한다. 이처럼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의 행위는 그칠 줄을 모른다.

그가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놓고 행하여지는 그의 예술행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저 하나의 일상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예술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 지식이나 경험들을 모두 버리고 현재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두지 않는다.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를 수용하며 자신의 인식을 적용해가는 것이다.

예술은 언제나 고귀하며 일정한 카테고리틀 형성하며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화된 방식인데 리처드 롱은 이러한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패러다임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와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이다.

그가 처음 선을 접하고 보행선을 배우면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보행하는 동안 무아(無我)와 일심(一心)의 관점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자주 표현하는 원형은 순환과 윤회를 상징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원형을 걸어가는 수행방식은 반복성과 순환의 의미를 통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가치 즉, 새로운 의식이 깨어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시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시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의 행위는 정지한 것처럼 무의미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시간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닐까?

<RED SLATE CIRCLE>은 시간이 정지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각각 다른 모양의 돌들이 원형을 만들며 공간 속에 놓여 짐으로써 자연 속에서 느껴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돌과 함께 새로운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돌이 어디에 어



리처드 롱의 1989년 작 <BOURGOGNE CIRCLE>. 돌이 시간이 흘러 진흙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변화하는 것에서 우리는 연기를 느낄 수 있다.

### 행선 배우며 선사상 심취 순환의 질서 작품에 담아 발걸음 통해 시·공간 표현 금강경 '이상적멸분' 연상돼

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변화한다. 이는 시간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간성이 약화되고 공간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즉, 공간은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간의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존재성에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방식에서 공간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공간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공간성은 문화, 철학, 종교, 예술, 건축, 음악 등 다양한 특성을 만들어 낸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특성들은 고착화 되며 그 전통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성에 시간성이 더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리처드 롱의 작품 속에서 느껴진다.

존재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 무관하게 존재하며 그 가치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돌은 돌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대로의 존재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 많은 혼동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변한 바가 없다. 그가 보여주는 돌의 작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이다.

리처드 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식의 변화를 감지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돌의 작품들을 통하여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인 변화에 속지 않고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모습이 엿보이는 작품들이다.

<BOURGOGNE CIRCLE>은 돌이 시간이 흘러 진흙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바닥에 놓여 있는 돌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루가 되고 가루가 모여 진흙이 된 것을 물감처럼 벽면에 순간의 행위를 통하여 회화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돌, 가루, 흙, 물, 바람, 해 등 다양한 모습의 요소들이 하나 둘 조화를 이루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윤회의 인드라망을 연상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의 내용처럼 모든 것은 변화한다. 단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간을 인지한다는 것이 모두 그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현재조차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변화의 과정을 인지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간성 속에서 잠깐 온전한 상태(一心)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간성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고 현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나아가서 깨어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리처드 롱의 진흙을 이용한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는 특성들이다. 걸어가는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의 교감을 도출하고 있다. 실내의 전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걷기 명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걸어가는 흔적들만 남은 공간속에서 그 흔적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한 시간은 이미 지나가버린 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성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공간성은 어떠한가? 공간은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후까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전혀 이질적인 돌과 진흙의 재료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공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진행이 되었으나 그 공간에 들어오는 관람객은 전혀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인식범주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관객은 자신의 인지하는 관점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으로 인지할 것이다. 이처럼 리처드 롱의 작품들은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고정화하지 않는다. 시간성과 공간성이 멈추어진 것 같은 전시공간 속에서 그가 행한 행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시간성 속에 나타나는 그가 걸어난 거리는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멈추어진다. 걸어가는 거리는 곧 시간이며 시간은 다시 공간성 속으로 사라진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게 사라진다)'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변화에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작품의 주된 내용들이다. 자연은 순환하지만 반복되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며 변화한다. 그 변화의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 작은 감각들이 확대되며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며 그 존재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리처드 롱의 작품에서 초기부터 줄곧 보여주는 공통적인 화두는 '순환'이다. 순환하는 이치를 찾아 자연 속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형상의 변화를 인지시켜주며 그 곳에서 가치를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선 예술가는 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래의 길(道)을 찾아 가고 있다. 그 길은 만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식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유럽에 선사상이 확산되며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어법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시대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리처드 롱은 시·공간성의 경계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인들이 이해한 선(禪)은 현재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리처드 롱의 작품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시간, 거리, 공간 등의 존재를 결정짓는 요소들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리처드 롱의 작품들을 보면서 마치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수행자의 걸어가는 모습이 겹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승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집입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